

과목:도시선교학

강의:이정현 박사

차 례

- I. 여는 글
- II. 도시화의 개념과 도시발전의 과정
 - 1. 도시화의 개념
 - 1)도시의 용어
 - 2)도시화의 개념
 - 2. 도시의 발전과정
 - 1)고대도시
 - 2)중세도시
 - 3)현대도시
- III. 성경에 나타난 도시 선교의 모델
 - 1. 요나 모델
 - 2. 느헤미야 모델
 - 3. 예수님의 모델
 - 4. 바울의 모델
- IV. 도시선교의 문제점
 - 1. 농촌 선교에 초점을 맞춘 세계 선교 현황
 - 2. 사령부식 선교와 목회
 - 3.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들
 - 4. 복음으로 둔갑한 사회적 이데올로기
 - 5. 회피하는 빈민사역들
 - 6. 과도하게 문화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교회
- V. 도시선교의 전략적 원리
 - 1. 도시선교의 전략적 특성
 - 2. 도시선교의 전략적 원리
 - 1)공동체적 선교접근 전략
 - 2)동질 단위집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접근 전략
 - 3)사회봉사와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총체적인 접근 전략
 - 4)통일성의 선교전략 원리
 - 5)수용성의 원리
 - 6)치유사역의 원리
 - 7)양육의 원리
- VI. 닫는 글

I. 여는 글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시공을 만드셨는데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풍자하면서 도시를 사단의 주 활동 무대라고 비난했다. 도시선교에 대한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그 동안 오지와 밀림의 선교는 강조되었지만 도시선교는 상대적으로 등한히 여기게 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의 도시 사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도시화는 특히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사회의 목회와 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로서는 세속적인 물질주의나 상업주의와 현대사회의 빈민문제와 소외문제, 또한 세속주의와 구분이 어려운 이데올로기 등이 목회와 선교사역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들이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사역, 곧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보다 준비된 전략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주먹구구식의 사역의 방법론으로는 선교와 목회에 오히려 방해거리만 될 뿐이다. 사역현장에서 도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도시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도시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본 글은 모두 6장으로 되어있으며 제2장에서는 도시의 개념과 도시발전의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도시선교의 모델에 대하여 요나와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의 선교모델 등을 고찰할 것이며 4장과 5장은 도시선교의 문제점과 도시선교의 전략적 원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도시선교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도시화의 개념과 도시발전의 과정

1. 도시화의 개념

1) 도시의 용어

히브리어의 이르(עיר), 키르야(קיריה)는 도시(city)라는 뜻의 용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이르(עיר)이며 구약에서 1,090번이나 나온다. 이르보다 시적인 용어는 키르야(kiryah)이며 이외에도 케렛(קרת)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샤아르(sa'ar:성문)란 용어는 특별히 신명기에서 도시의 기능을 정의의 중심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23:7절에서는 성읍으로 번역되었고 여호수아 2:15절에서는 성벽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리고 헬라어의 폴리스(πολις)등의 단어들이 도시, 성, 성읍, 고을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2) 도시화의 개념

도시는 인류문명의 발상지인 동시에 모든 문명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를 인구숫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U.N.의 도시 기준에 의하면 인구 2만 이상을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5만 이상을 도시라고 한다. Gordon Child는 도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도시는 전문적인 제도, 교통운수 등 시설이 많고 이들은 농촌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 (2) 많은 주민과 높은 인구 밀도
- (3) 위대한 예술은 도시에서 창조되어 주위로 전파된다.
- (4)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기술들이 도시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에서 시작된다.
- (5) 정확한 예측 분석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과학의 학문발달이 도시에서 시작한다.

- (6)농민들은 도시에 있는 승려들에게 세금을 지불하고 도시는 그 세금으로 유지되었다.
- (7)도시의 주민들은 개개인의 독립된 자영으로 도시시민이 되어 도시를 구성한다.
- (8)도시내에는 지배의 상징으로 기념비적 공공건물을 두고 있다.
- (9)도시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와 교역을 한다.
- (10)도시내의 계급적 구조가 전문인, 비전문인으로 구분한다.

2. 도시발전의 과정

1)고대도시

고대도시는 유목과 농경사회였다. 유목사회는 이동중심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정착하여 함께 모여 살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도시의 발전은 촌락사회-작은읍-소도시-대도시-거대도시-세계도시로 발전한다. 특히 토인비는 “모든 대륙의 거대도시는 세계도시로 등장할 것인데 이 새로운 형태의 도시는 오직 한 유형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도시는 이름과 같이 지구표면 집합도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서구에서 고대도시는 헬라와 로마에서 시작된 것으로 도시국가(City state)이다. 도시라는 헬라어 Polis는 성을 의미하며 도시는 주로 주민을 보호하는 요새나 성벽으로 발전하였다. 고대도시의 주요한 특징은 종교의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2)중세도시

중세의 도시는 Theopolis로 정의할 수 있다. A.D. 313년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독교는 정식으로 도시에서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이 때부터 Cosmopolis는 Theopolis로 바뀌게 되었다. 중세에는 길드와 교회와 영주가 지배하였으며 특히 교회와 영주가 함께 지배하는 시기였다. 소읍에서는 목가적 분위기였으며 교구적 교회가 생겼다.

3)현대도시

(1)형성과정

1세기만 하더라도 세계인구는 오늘날의 인도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2억 5천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1750년대에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을 때에도 세계 인구는 오늘날의 중국 인구보다도 훨씬 적은 7억 2,800만 명에 불과했으며 1950년대에 가서야 비로소 세계 인구는 24억에 이르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40년간에 세계인구는 두 배로 늘어나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과학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이후 새로운 농약의 개발과 농작법의 발달로 식량공급이 증가하고 기아와 영양실조의 위험이 줄어드는 이른바 “녹색혁명”이 일어났으며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서 유아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인구는 팽창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제3세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인구의 성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보건 기술이 제 3세계에 도입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제3세계 인구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최절정에 달하여 현재 세계인구 증가의 90퍼센트 가량이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한화룡 도시선교 1997:34-37).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도시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90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의 9%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1920년대는 14%, 1950년대에는 29%로 증가하더니 1990년에는 45%에 도달했고 2000년에는 5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되었으며 2025년에는 6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시화의 문제점

인구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도시의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인구 밀집화 현상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초래하여 공해문제, 교통문제, 빈민굴, 주택난, 범죄, 향락주의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이 발생했으며 도시화는 정치면에서 엄격한 통제를 야기시켜 권력의 집중화 현상과 비대화 현상을 초래한다. 즉 후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는 존 록크의 말처럼 “이리 대 이리의 관계”라 하여 자연히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무관심이 도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면서 고독한 군중, 무감각증, 세일즈맨의 죽음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클라크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개인주의, 유물주의, 인본주의라고 지적하였다.

III. 성경에 나타난 도시선교 모델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성읍과 도시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땀흘리는 수고도 없었고, 경제활동과 안전을 위한 도시의 필요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판단에 따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모든 피조물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심판 가운데 있게 됨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의 찬연한 목적을 상실하고 부패와 오염 가운데 빠져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삶의 방식과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읍의 처음시작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의해 세워졌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징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면케 하셨다. 그리고는 “가인이 여호와와 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뚝 땅에 거하였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창 4:9-17).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안전을 추구하는 행위의 상징으로 성(도시)을 세웠다. 가인 이후 도시의 여러 모델들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요나 모델

도시선교의 성경적 모델 가운데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중요한 부분은 ‘요나모델’이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교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과 계획을 잘 나타내 준다. 그린웨이(Greenway)는 ‘요나모델’을 “패망의 도시들을 위한 소망”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선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

1) 도시와 죄

‘요나모델’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의 죄악 문제이다. 하나님은 도시 사회학의 관점에서 니느웨성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죄악된 양상을 보았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표적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그 도시의 사악함 때문에 슬퍼하셨다. 이처럼 멸망할 위기에 있는 니느웨성에 소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다. “일어나 그 큰 도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외치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까지 상달 하였음이니라”(욥1:2)고 말씀하셨다.

니느웨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다. 세계적인 대도시였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제국

의 수도였다. 또 1,500년이나 지속되는 전통적인 도시였으며, 가인이 에녹성을 세운 이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웠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요새였는데 외성벽은 96km나 되었으며 내성벽은 높이가 30.5m였다. 그 흥벽위에서는 말이 끄는 전차 3대가 나란히 갈 수 있었으며 왕궁을 건축하는데 1만명의 노예로 12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공원과 공공건물들은 전세계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니느웨의 부와 풍요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를 불러들였다. 니느웨의 풍요는 압제와 전쟁, 약탈에 의해 세워졌고 그 도시의 정치, 군사, 경제력은 약한 국가들을 착취함에 이용되었다. 선지자 나훔은 “화 있을진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쾌활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도다... 살육 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나3:1-4)고, 니느웨를 열국의 배신자요 음행의 도시라고 묘사하였듯이 니느웨는 마술의 여왕이었고 악행의 도시였으며 외설문화가 있었고 우상과 폭력이 난무하는 ‘피의 도성’이었다. 그들의 죄는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등의 집합적인 요소도 포함되었다. ‘사악함’이라고 표현되는 말에서 니느웨의 총체적인 죄 문제가 나타난다. 니느웨의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 도시와 선지자

하나님은 거대하고 미려(美麗)한 도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초라한 히브리인 선지자 요나를 택하셔서 기울어 가는 악명 높은 도시 그 거대한 니느웨를 무릎꿇게 만들도록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의 택함을 받고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욥1:3) 정반대 방향으로 간 그에게 풍랑은 그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의 고통을 겪으며 영적 소생을 체험하였고 감사와 복종을 고백하자 새로운 사역의 무대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욥2:7-10).

선지자의 민족주의적 의식이나 범죄한 도시는 멸망받아야 한다는 권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도시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을 알 수 있다.

3) 도시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욥3:4)란 외침에 니느웨 전체 시민이 회개하였는데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서부터 낮은자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였다(욥3:5-9).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도피의 길을 찾기보다는 철저히 회개하였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논쟁하지도 않았고 멸망의 정당성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이들의 회개는 개인적인 동시에 전체적인 것이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사역이 현대도시 선교에 주는 교훈을 그린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Greenway Apostles to the City* 1978:15). 첫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다. 죄악의 도시요, 이교도의 도시인 니느웨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배워야 한다. 경건한 이스라엘은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돌아보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와 같은 형태에 빠지고 있다. 교회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밖의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둘째, 예언자적 소명에 대한 이해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도망가는 선지자들”의 예표이다. 셋째, 선지자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요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시며, 은혜의 통로로 활용하셨다.

넷째, 선교 전략적 교훈이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대표적 도시로서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나님은 작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통하여 선교하는 선교전략의 새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도시선교의 성격 이해이다. 도시의 죄악의 팽배하고,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악의 요소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케하는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2. 느헤미야의 모델

도시선교의 다른 모델은 “도시 갱신”을 도모한 “느헤미야 모델”이다. 파괴되고 소멸해 가는 도시를 어떻게 쇄신시킬 것인가란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인데 느헤미야를 통해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느헤미야 모델을 요나 모델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시 갱신”이라는 변혁을 강조하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도 연관된다.

1) 도시갱신의 필요성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문에 모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황폐하고 폐허가 된 상황에 직면하였다.

느헤미야는 B.C.444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귀환한지 13년 후요, 스룹바벨이 백성을 이끌고 귀환한 이후 94년이 되는 때였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된”(느2:13) 상태였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도시에 대하여 새로운 갱신을 도모하였는데,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라 영적 원동력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였다. 도시의 갱신이 필요한 것은 도시의 황폐, 즉 도시 자체의 황폐와 도시 시민들의 마음이 황폐해진 때문이다.

2) 도시 갱신의 메시지

‘느헤미야’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한 점이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만을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파멸을 가져오는 부패를 예방해 줄 영적 기반을 세우기 위하여 도덕적, 종교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사회적, 정치적 개혁들이 가능하다.

7년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은 모세 율법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것이었다(신31:9-13). 그러나 바벨론 포로 동안에는 이러한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자유로운 집회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고 그들의 옛 고향에 돌아와 이 말씀을 사모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을 펼쳤을 때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행동으로 일어섰다.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3) 도시 갱신을 위한 성경적 교훈

‘느헤미야 모델’을 통하여 오늘의 도시선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시대에도 역사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뜨겁게 작용하신다. 도시 갱신을 위한 성경의 교훈들을 그린웨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에 뒤지는 법이 없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포로 귀환 후의 예루살렘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으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화로 번역될 수 있다. 느헤미야

8:1-12절을 보면 성경은 읽어주는 데에 성경 해석이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통역도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귀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순수 히브리어보다 바벨론 국어였던 갈대아어를 더 잘 이해하였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과 사회의 이슈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은 감동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경축을 하게 되었다(느8:9-10). 도시 갱신과 도시생활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이 갱신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도시선교의 전략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선포에서 출발한다.

3.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의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며, 전에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배척을 받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죽으셨다. 또한 그분은 생전에 앞으로 우리가 있을 곳(요14장)과 사도요한을 통해 새 예루살렘 도시에 관해 계시하시기도 하셨다(계시록).

예수님은 유다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배척을 받아 도시에서 유리되는 삶을 사셨다. 공생애 기간 중 갈릴리 유다 등의 여러 도시에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셔야만 했다.

주님이 비록 도시로부터 유리되시기는 했으나 도시사역을 멈추지는 아니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치 않는 고라신아, 벳새다야, 가버나움아”라고 도시의 회개를 촉구했으며 제자들을 도시로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사역말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죄로 인해 돌 하나도 돌 위에 찰 놓이지 않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셨다.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단한 후 3일만에 살아날 것을 기록한다. 그 도시에 입성하시면서 이미 그곳에서 죽으실 줄을 아셨고 그것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 보셨다.

예수님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시며, 그곳에서는 믿는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며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 주셨다.

4. 바울의 모델

도시선교에 있어서의 핵심적 모델은 바울이다. 바울은 도시 사람이었다. 바울이 사용한 언어 체계는 헬라의 수사학적 표현에 정통한 것들이었다. 또한 바울은 도시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였으며 히브리의 종교적 전통, 헬라의 철학 사상,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기독교를 체계화하고, 나아가서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바울의 사역은 도시선교의 전형적 모델이며 오늘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도시선교를 몇 가지로 분석하려고 한다.

1) 도시선교의 배경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 바울이 사역하였던 시기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의 기독교’가 ‘그레코 로마의 기독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바울의 도시선교의 배경을 이룬 도시들은 로마제국의 중앙 정부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독립적 행동이 용이한 지방군주(principate)에 속하였다. 이 도시들은 상인들과 이주민들, 그리고 노예 등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되어졌다(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 1983:9).

당시의 사회적 여건들을 보면 귀신숭배가 만연하였고 종교의식의 도덕적 성격이 매우 타락하였다. 또 노예제도와 원형경기장이 있어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였다(알렌 “바울의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1993:50).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것들이며 도리어 이것이 복음을 수용하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하였다. 바울의 도시선교는 복합적인 도시문화의 특성 속에서 이루어졌고, 나아가 복음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도시선교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는 장소와 청중에 따라서 표현방법이 다르지만 크게 회당설교와 이방인 설교로 구분할 수 있다. 그의 설교의 특성을 롤랑 알렌은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바울은 유대 민족의 과거사를 들려주고 복음의 근원이 거기에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예수의 오심과 거부, 그리고 십자가형에 관한 사실들을 설명한다. 셋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강한 확신 속에서 전파했다. 바울은 죄의 회개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인간끼리의 화해를 주장하였다.

3) 도시선교의 전략

바울의 도시선교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을 다루려고 한다(알렌의 앞의 책을 참고하라).

첫째, 죄인들의 회심이다. 바울의 도시선교 전략은 개인의 회심에서 출발한다. 그의 회심 경험은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나(빌3:4-6) 이것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도모하지 못하였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죄인의 회심을 강조하였고 회심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계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회의 설립이다. 바울은 개인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교회의 설립이다. 바울은 교회 설립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교회의 조직과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었다(알렌 1993:155ff).

셋째, 사회에서의 증거이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개인의 회심에서 교회 설립으로, 다시 전체 도시로, 나아가서 세계로 확산되는 파상적 확장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양태를 보여야 하는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도시선교 전략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위에서 살펴본 도시선교의 네 가지 성경적 모델을 통하여 도시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며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선교의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김남식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2000:18-26, 김세배 “도시선교의 성경적 기초” 1999:3-9).

IV. 도시선교의 문제점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은 복음과 교회의 세속화 문제는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교회는 분명한 선교적 도전과 사명

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도시선교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어두움의 세력이 도시 안에 확장되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너무나도 분명히 방해하고 있음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 세력의 도전은 대단히 교묘하고 다양하여서 그 도전의 배후 세력마저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로 하여금 도시를 포기하게 하든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영적 좌절감과 자포자기의 정서를 확대시킨다. 도시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복음으로 채우려 할 때 이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어두움의 배후세력의 도전의 다양함과 교묘함에 대하여 충분한 통찰이 필요하고 그 실체를 이해한 바탕위에서 승리를 위한 도시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농촌 선교에 초점을 맞춘 세계 선교 현황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도시선교보다는 농촌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과 도시는 복음에 대해 저항적이며 비수용적일 것이라는 편견, 농촌 출신 사역자들의 농촌에 대한 선호도, 사역자 훈련의 문제점 등은 세계교회들의 선교적 초점을 농촌에 두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들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그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세계 대부분의 선교기관들이 그 본부는 도시에 편의상 두고 있으나 그들의 사역들은 모두 농촌에 집중되어 있든지 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2. 사령부(Headquarter)식 선교와 목회

레이몬드 바키(Raymond Bakke)는 마치 군대의 “사령부식 선교와 목회는 큰 도시들의 파멸의 근원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사령부식 선교와 목회는 여러 가지 선교의 자원과 전략을 동원하여 그럴듯하지만, 직접적인 도시의 현실에 뛰어들어 전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인색함으로서 선교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선교와 목회가 전인격적인 선교를 회피하고 프로그램 지향주의적 선교 또는 사령부식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남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에서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마이애미에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몰려 있지만 그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선교사 가정은 단 하나에 불과하며,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선교사들은 같은 이유로 공원 위의 언덕이나 도심지의 좋은 지역에서 모여 산다.

한국의 소수의 목회자들은 강남의 부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강북의 빈촌 지역의 교회를 목회 한다.

3.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들

농촌의 삶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는 해도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과 규칙적인 휴식,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 온 가족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들이 가능한 삶이었다. 그러나 성공지향적인 도시의 삶에서 보여지는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생활, 쏟아지는 격무들과 스트레스, 쫓기는 시간 때문에 어색해지는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등은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이들에게 일요일은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는 도시의 크리스찬들을 변화시킨다. 머레이 리이퍼(Murray Leiffer)의 다음과 같은 묘사는 변화하는 도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한 젊은 부부가 세인트루이스나 디트로이트에 이사 와서는 좀 쉬기로 마음 먹었다. 찾아오는 목사도 없고 해서 그들은 마음껏

책임감 없는 자유를 만끽 하였다. 그들은 일종의 “카페테리아식 크리스찬”(cafeteria Christian)이 되어 한주일은 브리크 복음교회에 나가고, 다음 주일엔 윤리학회의 강연회에 참석하는 등 분명한 제멋대로의 교회 출석을 한다. 언젠가는 한 교회를 선택하여 적을 두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곳 저곳 많은 가능성 등을 타진하며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다”(Leffer *The Effective City Church* 박근원 역, 도시교회목회론:59).

4. 복음으로 둔갑한 ‘사회적 이데올로기’(social ideology)

부패한 도시사회 상황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보다 온전하고 균형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삶의 현장인 도시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사회적 영역에서 제한시키게 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된다. 그 예로 사회지향적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는 민중신학의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대립적 구도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전통적인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축소시켜 이해한다든지, 구원의 의미가 믿음을 통한 칭의와 구원의 의미는 빠지고 사회적 정의로 축소되어 이해된다든지, 죄의 개념이 개인들의 본성안에 있는 원초적 죄의 개념은 사라지고 사회적 죄의 개념으로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된다. 남미의 해방신학도 그 한 예이며, 이러한 이해들은 맑스주의의 사회적 이념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사단의 전략중 한가지는 교만한 인간의 자아를 자극시켜 복음을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복음을 대체시킨 교회들이 종종 범하게 되는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속에 창조해 놓으신 공백(God-created vacuum in the soul)에 강조점을 두는것이 아니라 ‘계발될 필요성이 있는 보편적 인간의 하나님 의식’(universal God-consciousness)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 또한 인간의 희망을 십자가의 영광속에서 바라보게 하지 않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자기노력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구원의 복음임을 증언하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섭리가 없는 한 법과 제도와 구조적 개혁은 피상적일 뿐이며 온전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개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5. 회피하는 빈민사역들

급속한 도시화는 농촌의 많은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하여 이들은 도시에 두터운 빈민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3세계를 중심으로 도시로 몰려든 빈민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민가를 보면, 교회가 거의 없고, 목사가 드물며, 선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의 사역자들은 실제로 빈민가를 회피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미출신의 많은 선교사들은 시골이나 읍 출신으로 대도시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3세계 도시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의 대다수의 개신교회의 도시 사역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매우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6. 과도하게 문화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교회

오늘날 도시안의 교회들은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회와 획일성을 지향하는 교회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기 중요한 선교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교회안에서 다양한 사고와 생활 방식들이 서로 관대하게 교류되고 존중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의 핵심의 차원이 아닌, 한정된 주제, 획일된 행동 양식, 획일된 생활방식을 주장하게 될 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대화의 주제가 한정되거나, 문화적 획일성이 강조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

1)접촉점 없는 문화

획일화된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생활 방식에의 고집은,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향유하고, 다양한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는 많은 도시인들에게 매우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형식의 메시지 선포는 그 적용이 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진실하게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그 예로 과거의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하여 죄악시하며 심한 비판을 하는 것과, 전체 교인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장르의 찬송가만을 고집하며 복음성가를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원로장로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새로운 목회계획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경우 세대간 문화적 차이는 심각해 질 것이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회의 건물 유지가 보수 신앙 유지로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에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함으로서 성장의 결정적인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남미의 천주교회에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며 라틴어 성경을 고수함으로서 미사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 된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는 신앙생활을 20-30년 한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설교만을 함으로서 새로 나온 신자들은 이해도 못하며 관심과 흥미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인수는 증가하는 데도 초창기 개척멤버들과 지도자들의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목회와 변함없는 프로그램은 청장년 세대와 방문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어 교회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예들은 흔히 접하게 되는 각 교회들의 문화적 보수주의의 예들이다. 문화적 보수주의의 공통점들은 문화적으로 교회를 보수하는 것을 마치, 복음 자체를 보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음으로서 질적 양적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각종 질병들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질병들을 교회 성장학적 용어로 분류해보면 종족결집증, 안목부재증, 교제과잉증, 사회학적 교살증, 영적개발 억제증, 기구조직 고착증, 지도력 긴장증,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에 빠질 때 생기게 되는 질병들에 대한 대책은 문화적 개방주의로 가는 길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에서 역력히 발견된다.

2)독선적 지도체제

문화적 획일성이 강조되는 공동체는 강한 응집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쉽게 독선적 지도체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독선적 지도체제는 합리적 조직생활에 익숙해 있는 도시인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어 다수의 도시인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도시에서의 지도자는 관리자이지, 지배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폐쇄성에서 나오는 교회 분열

교회의 분열은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폐쇄적인 인격적 성향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격은 자신의 의만을 강조한 바리새주의를 만들게 되고 이는 다른 유형의 인간들을 배격하게 되고, 이는 파벌주의를 교회안에 만들게 된다. 이러한 교회분열은 사회적 신뢰도(social credibility)를 떨어뜨리고, 지역 사회에서 복음선교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V. 도시선교의 전략적 원리

1. 도시선교의 전략적 특성

도시선교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오늘의 도시 상황을 극복하는 선교전략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도우슨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유재국 역 1992). 도시선교의 전략적 특성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몇가지 특성을 살펴본다.

1) 도시의 선교적 의미

현대도시는 가공할만한 형태로 팽창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될 때 범죄, 질병, 실업, 주택 문제 등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나아가서 공기 오염을 통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등장 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 속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선교적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나 선교운동은 도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오지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서 도시선교는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였다(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2nd ed. 1980:316-318). 또한 농촌출신의 선교사들이 도시에 적응하기 못한 요인도 있으며, 또 신학적으로 도시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도시의 부패와 혼돈이 강조되었으나 이것이 선교를 위한 도전의 기회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도시의 선교적 의미를 자각하는 도시 선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제는 도시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개척지라는 이해들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새롭게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바울의 도시선교이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다시 시골로 확산하는 선교적 확장이었다(알렌 1993:155ff).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도시선교의 비전을 통해 도시선교에 대한 자극과 관심을 가지게 한다. 다시 오실 메시야는 “시온은 구원하시고 유다 도시들을 건설하는”(시69:35) 도시사역을 이루시리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자각을 가지게 한다.

2) 도시 빈민의 문제들

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도시빈민 문제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와 함께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이들은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도시빈민’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개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도시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도시화 현상에서 빚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도시빈민은 일제 식민지 수탈정책에서부터 발생한 역사적 개념 위에 농업부문에서 광범한 이농현상과 도시 비 자본주의 부문의 확대재생산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빈민집단이 안고 있는 문제중 첫 번째는 취업의 문제이다. 이들은 완전고용보다 불안정한 취업활동이 일반화 되어있어 이들의 취업문제는 심각하다(일용건축노동, 파출부, 노점상, 영세 서비스업 등). 둘째로는 주거문제이다(무주택 가구). 셋째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의료문제이다. 넷째는 자녀교육문제이다. 자녀교육문제는 도시빈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여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

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고 하셨듯이 도시 빈민선교의 문제는 하나의 구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시하신 것 같이 총체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 즉 말씀의 선포, 치유, 가르침, 정의와 선행의 총체적인 사역을 말한다.

3)도시 이주자 선교

농촌의 황폐화와 함께 발생하는 이농 현상은 이주자 선교라는 실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시 이주자들은 생활환경의 변화라는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며 이에 대한 갈등의 해소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이주민들은 전통적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 진입하므로 적응을 위한 문화적 충격을 겪으며, 반대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신분상승을 원하게 되며, 전통적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사회적 불안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한화룡 1997:161ff). 이들은 목적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여 보다 넓은 세계에서 활동하려는 의욕이 가득하여 이들은 신앙을 수용하는 것도 도시토착민보다 용이하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들을 위한 선교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앙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사역’이다. 도시계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역조직이나 전도회를 활성화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김남식 2000:26-32).

2. 도시선교의 전략적 원리

현재 세계 도시인들의 대다수는 교회가 자신들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교회의 메시지 자체도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때에 효율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도시선교와 목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도시 선교가 통전적, 또는 총체적(wholistic)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라는 의미는 총체적 그리스도(whole Christ)를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invisible Christ)가 아닌, 총체적 사역은 영적, 물질적, 심리적 사역 모두를 포함하며, 이 같은 사역의 내용이야말로 ‘총체적 복음’(whole Gospel)인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대상인 인간은 불가분리의 영적, 물질적,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선교사역은 이러한 영적, 물질적, 심리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것이었던 것이다(정병관 “도시선교의 문제점과 전략적 원리들” 2000:85-86). 도시선교에 대한 전략적 원리는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1)공동체적 선교 접근 전략(community-based mission outreach strategy)

도시선교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다. 도시 자체가 수많은 하위문화(subculture)와 종속제도(systems and institutes)로 구성되어 있기에 개개인은 도시 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동질성, 역할, 소속, 성취, 정서적 안정감등 인간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생활해 나간다. 따라서 도시 안에 있는 개개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 훈련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회심뿐 아니라 저들이 소속된 하위문화와 각양 제도들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변혁까지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도시 상황 속에서 진정한 토착 교회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리처드 드 리더는 도시 선교를 위한 교회 구조는 제도적인 조직, 역할, 건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 공동체 특성이 나타나며, 가족과

같은 연대감 속에서 도시인의 기본 욕구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선교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idder "Church Structures for Urban Mission" in *Discipling the City* ed., by Roger S. Greenway 1986:71-88).

칼빈 가이는 도시 구조 속에서 개개인의 외로움과 정서적인 불안감, 영적 황무 등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감과 위로와 내적 변화와 외적 갱신을 얻기 위해 초대 교회와 같은 가정 교회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한다(Guy "Pilgrimage Toward the House Church" 1986:107-127).

비브 그릭은 도시 구조안에 묶여 있는 개개인을 화심시키며 도시 구조에 왕국적 차원의 변혁을 일으키려면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Grigg *Companion to the Poor* 1984:80-82).

이와 같이 공동체적 접근 형태는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어느 특정한 전략적인 지점에 본부 교회를 세워놓고 다양한 하위 문화속의 도시 계층에게 가정교회 형태의 공동체적 모임을 결성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공동체적 교회를 형성하고 가족적인 유대감과 결속을 심어주어 도시 구조속에 개개인의 필요성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채워주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적 선교 접근은 특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도시의 병리 현상이 심각한 세계 2/3지역에서의 도시선교에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2)동질 단위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접근 전략(homogenous unit people oriented mission approach strategy)

교회 성장운동의 창시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 방법을 세계적인 선교전략으로 대중화하였지만 도시선교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교 전략이다. 도시는 복합문화의 다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 문화와 인종의 특성은 도시의 구조적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동의 주거군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동질 단위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결속력은 고향에 뿌리 박힌 문화적, 정서적 귀소 본능에서 나오며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의 도시 삶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동질 단위 측면을 연구한 디모테 몬스마(Timothy M. Monsma)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합성에 손상 없이 다양한 유대인 동질 단위 그룹이 초대 교회 시대에 각 지역별로 교회 내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동질 단위 그룹이 선교 역사를 통해 계속 존재했으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Monsma "Family, Clan and Tribe in the City" 1986:151-174).

동질 단위 선교전략은 도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단순히 어느 특정 종족 중심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 직업, 취미, 생활 수준, 지역적 근린성 등의 사회적 결속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과 봉사, 구제, 선교 기구를 교회 안에 설치하고 상호간에 소속감과 효율적인 친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화하여 다른 동질 단위의 그룹들을 섬기고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효과적인 접촉점의 역할과 양육, 훈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2/3지역의 도시들의 복합적인 문화와 다 인종 상황은 바로 이러한 동질 단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략을 요청하는 것이다.

3)사회 봉사와 구조 갱신을 지향하는 총체적인 선교 접근 전략

도시의 복잡성과 구조적인 특성은 개인의 회심 차원의 선교 목표를 설정해서는 효과적인 도시 복음화를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도시 선교 전문가들은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구조적인 갱생까지도 도시 선교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비 콘은 교회 중심의 정적인 목회 프로그램만을 가지고서는 도시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도시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식하고 성도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도시의 모든 영역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교회의 총체적인 사역(wholistic ministry)의 중요성을 논한다(Conn, *A Clarified Vision for Urban Mission* 1981:216-218).

그린웨이는 도시의 구조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회심의 선교 뿐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도 변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되고 도시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총체적인 선교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선교를 하나님의 왕국 전망(Kingdom prospective)을 가지고 수행하는 선교라고 호칭하며 교회가 도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도시인들의 전인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의 근본적인 변혁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도시 빈민의 종속적인 구조악의 문제, 영적이고 정신적인 황폐함 등에 교회는 왕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시인들의 삶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혁도 일으켜야 한다고 한다(김성태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도시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 신학지남 1994:326-327).

4) 통일성(Unity)의 선교 전략의 원리

도시인들의 다양한 사고와 생활방식에 관대하고, 적응하면서도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채색되지 않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제시하는 통일성의 목회와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초문화적(supracultural)이고 초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① 복음과 이데올로기는 다르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정황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수세기 전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 왜냐하면 인류는 한 족속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국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제들이 세대가 바뀔에 따라 규모와 모양을 각각 달리하여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은 성경의 심판과 구속의 메시지가 죄악의 상태의 인간에게 전해지는 기본적인 구도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역사적, 성경적 복음을 부여잡지 않거나 또한 다양한 문화적 사상과 운동 또는 이데올로기에 적응하려는 나머지, 복음과 그것들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복음의 의미는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현실의 필요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너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이고, 현세적 차원만을 강조한다면, 초월적 세계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부인하며, 현시대적 필요와 영원한 우선적 사항들을 혼돈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② 성경의 권위의 상실은 복음의 상실이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신학적 작업들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무력하게 하고, 교회의 선교를 약화시킨 주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한 사회학자 벤튼 존슨(Benton Johnson)의 연구는 매우 실체적이다. 그는 1986년 미국 장로교회 연례 신학교육협회의 모임에 제출한 연구 논문에서 자유주의 교회들에 의한 “성경 권위의 상실”이 성도들의 선교 의욕

을 빼앗아 가 버렸다”라고 강력히 역설하였다. 성경 권위의 상실은 교회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슨 바람직한 일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엄연한 장래를 우리는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학적 개방성과 문화적 개방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③문화적 개방성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데올로기화되지 않은 복음, 상실되지 않은 성경의 권위는 문화적 개방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 예를 들면 유아 학살이 문화적으로 이해 될 경우, 2차 대전 당시의 독일 국민들에게는 유대인 학살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경우, 본 해퍼의 히틀러 암살 기도가 전인류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경우, 남미의 해방 게릴라들의 저항이 저들의 비참한 상황을 고려해 심분 이해될 경우, 호주 토인들의 식인 문화가 이해 될 경우,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가 문화적으로 너무도 당연히 이해 될 경우, 동양의 조상숭배가 문화적으로 충분히 이해 될 경우, 각 문화가 포용하고 있는 종교적 내용이 부분적으로 이해되어 질 경우, 개방적인 교회는 선교적 기회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를 다수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때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이데올로기화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무기력한 교회들로 점차 쇠퇴하게 된다.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진정한 문화적 개방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④프로그램 차원에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

메시지 선포 차원에서만이 아닌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회는 마땅히 프로그램에 어떤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교 이념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 공동체적 사명과 책임을 격하시키는 제반 활동은 제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금확보를 위해 게임을 주선한다든지, 지역내에 적개심이나 좋지 않은 감정을 조장하는 프로그램들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 통합된 프로그램안에서 각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서 프로그램간 중복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병관 “도시선교의 문제점과 전략적 원리들” *신학지남* 2000:94).

5)수용성(receptivity)의 원리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교회성장과 수용성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①수용성 구분의 필요성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수용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역의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민족이나 사회, 집단, 개인 모두는 수용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이러한 수용성에 주목할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복음서는 주님께서 평민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보다 수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들에게 복음 증거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고 서둘러 보다 수용적인 마을로 갈 것을 권고하신다(눅9:5). 수용성의 차이는 분명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수용성의 파악은 그분이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그곳에 기꺼이 들어가는 순종하는 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해는 수용성의 차이에 따라 같은 인원의 사역자들이 같은 노력, 같은 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전혀 다른 선교의 열매와 교회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②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수용성을 결정하는 환경적인 변수들로서는 이주, 여행, 경제적 수준, 민족주의, 신앙상의

공백, 사회적 통제의 완화, 생애의 위기, 사회적 수준 등이 있다.

먼저 이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히 개방적이고 복음에 대해 수용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새로운 지역을 여행함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방적이게 되기 때문에 사역자의 여행은 수용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옛 종교들의 쇠퇴와 종교적으로 신봉하던 이데올로기의 퇴색 등은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③수용성이 낮은 사람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선교적 기회는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수용적인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마냥 개방적인 젊은이로서 남아 있지 않다. 즉 20세보다 12세가 더 적절한 시기이다. 종교적 관심도 일시적일 수 있다. 신앙적 체험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기 쉽다. 이주로 인해 생긴 수용성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또한 사회적 개인적 변화로 인한 수용성도 얼마 있어 적응될 때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수용적인 시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따라서 수용적 시기에 주어지는 선교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국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이 수용적인 시기에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루는 바람에 이주자와 그들의 2세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Hunter III *How to Reach Secular People* 1972:81-82).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이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매우 수용적이었다. 이때 침례교, 감리교는 이 시기를 선교적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성공회는 이 기회를 놓쳤기에 미국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인들 역시 중국 본토에서 피난 온 이후 처음 10-12년 동안만 복음에 개방적이었고, 또한 1950년대 도시로 나온 대만의 오지인들 역시 처음 15년 동안만 수용적이었으나 이 기회를 교회는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Mumper, "Taiwan's Urban Population-Time for a Spiritual Harvest," *Urban Mission* 4, September 1986:35-36). 또한 중동으로 이주한 모슬렘들도 잠시 동안은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체험되는 도시에 대한 환멸은 그들을 더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만들게 된다. 여기에 도시사역의 긴급함이 있는 것이다.

6)치유사역의 원리

인간이 복음을 매우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을 때이다. 토마스 오테아(Thomas F. O'Dea)는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되는 심리적 동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인간은 누구인가 안전과 복지에 결정적으로 관련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능력의 한계 때문이고 셋째는, 재화와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비롯되는 희소성의 상황 때문에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O'Dea, *The Sociology of Religion* 1966:5). 그렇다고 볼 때 소외와 무의미와 가치갈등과 박탈감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산업 도시속의 인간들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그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는 더욱 더 가난, 문맹, 실업, 고독, 질병, 좌절의 장으로 밀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 선교는 '치유적 사역'에 강조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치유적 사역은 인간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더 할 수 없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름진 옥토로 파악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사역자들은 복음을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때 사회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제공해주고, 자신의 안녕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함으로서 초월적인 신앙을 경험케 하여 실패, 불안, 실망의 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적극적인 ‘치유의 선교와 목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1)소외라는 도시적 질병의 치유

소외라는 도시적 질병의 치유사역을 위하여 교회는 도시의 개인주의자들을 집단적 믿음과 예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정서적 질병인 소외의 극복과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 준다. 또한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서 인간의 무 능력성, 소외감의 극복하게 하여 신앙을 통해 안정된 영적, 정서적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2)박탈감에 대한 치유

심리적 박탈감에 대해 교회는 복음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글락(Glock)은 박탈감의 종류에 따른 각기 다른 신앙적 보상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의 경우에는 신앙이 주로 내세에서의 구원 또는 축복이라는 신념과 믿음을 제공하든지, 세상의 경제적 부의 지위를 과소평가 한다든지 함으로서 자족케 함으로 보상의 심리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둘째로 윤리적 박탈감에 대하여는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셋째로 정신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줌으로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지나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의 종류를 적절히 분별해서 그를 구체적인 신앙을 통해 위로하고 선교적 접촉점으로 삼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사역은 전인격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교의 방향이 선교적 접촉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기능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것은 복음을 편중되게 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기능적 역할이 무시되거나 전혀 결여된 선교 역시, 복음 전달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됨으로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정병관 전게서 2000:105).

7)양육사역의 원리

세속도시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게 된 주된 이유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후, 효과적인 양육의 사역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당시의 선교사역이 지속적으로 힘을 가지고 계속 복음이 놀랍게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효과적 양육 프로그램에 교회가 정력을 쏟아 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목격한 바나바는 당시 부도덕하고 종교적으로 지극히 혼란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영향력이 곧 신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 저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을 혼란하게 할 것을 예상하고 저들을 신앙과 바른 교리로서 강화시키고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하여 정력을 쏟은 결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게 되었다(행11:24). 즉 가르침과 전파라는 두 가지가 같이 감으로 선교의 불길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전도를 보면 항상 복음전도와 가르치는 양육이 뚜렷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저들을 결신시키는 사역은 매우 긴급한 것이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저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는다면 잠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곧 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선교는 세상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곧 저들을 점령하게 내버려두게 되고, 교회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집합된 세속적 공동체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교회는 자신을 향해 되묻고, 결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러한 양육에 대한 열정이나, 심층적 노력이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만 하는 많은 도시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정병관 상계서 2000:92-107).

VI. 닫는 글

현대교회는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바람직한 전략적 원리대로 도시선교에 임하여야 한다. 도시선교는 총체적 사역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 개인의 영혼 구원뿐 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구조 갱신까지를 추구하는 총체적인 선교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통전적 사역은 영적, 물질적, 심리적 사역 모두를 포함함을 의미하며, 이런 사역이야말로 도시에서 총체적 복음(whole Gospel)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의 도시선교는 통전적 사역 원리를 지켜 나갈 때 비로소 도시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강력하고도 건강한 도시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